

이것이 MLB 클래스...LA 다저스, 키움과 평가전서 14-3 맹폭

다저스 타선, 17안타로 14점 뽑아 완승 거둬
‘슈퍼스타’ 오타니, 연속 헛스윙 삼진으로 침묵
키움 투수진, 11볼넷 헌납...타자들도 15삼진

LA 다저스가 키움 히어로즈에 완승을 거두며 미국 메이저리그(MLB) 클래스를 보여줬다. 다저스는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키움과 평가전에서 14-3 대승을 쟁겼다. 20~21일 고척돔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MLB 정규시즌 개막전 서울 시리즈를 치르는 다저스는 지난 15일 입국했다. 16일 훈련을 땀을 흘린 선수단은 이날 키움과 평가전으로 컨디션을 조율했다. 베스트 라인업이 가동된 가운데 다저스는 장단 17안타로 14점을 몰아내며 키움 마운드를 폭격했다. 다저스 3번 타자로 나선 프리먼이 홈런 하나를 포함해 6타수 3안타 1타점을 뽑아냈고, 제이슨 헤이워드가 5타수 3안타 4타점으로 활약했다.

큰 기대를 모았던 다저스의 ‘슈퍼 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키움 선발 투수 아리엘 후라도에 헛스윙 삼진만 두 차례 기록한 뒤 조기 교체됐다. 다저스의 마운드는 구원 투수들이 짧은 이닝을 나눠 던지는 ‘볼펜 데이’로 운영됐다. 가장 먼저 마운드에 선 마이클 그로브는 2이닝 무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키움은 투타에서 다저스에 압도 당했다. 후라도(4이닝 5피안타 1홈런 4볼넷 3탈삼진 4실점)에 이어 젊은 투수들을 계속해서 마운드에 올렸지만, 다저스 타선을 봉쇄하긴 역부족이었다. 이날 키움 투수진은 11개의 볼넷을 쏟아내며 고전했다. 타자들도 다저스 투수들에 15개의 삼진을 당하며 고개를 떨궜다. 다저스는 1회 프리먼의 시원한 홈런포로 가

볍게 선제점을 뽑았다. 프리먼은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후라도의 4구째 92.2마일(148.4km) 낮은 포심 패스트볼을 건어 올려 오른쪽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1-0으로 앞서나간 다저스는 2회 추가점을 뽑았다. 연속 볼넷으로 잡은 무사 1, 2루 찬스에서 헤이워드가 중전 적시타를 날리고, 개빈 러크의 땅볼에 3루 주자 제임스 아웃맨이 홈을 밟아 3-0으로 달아났다. 다저스는 3회 맥스 먼시의 볼넷,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안타를 엮은 1사 1, 2루에서 아웃맨의 중전 적시타로 한 점을 더 쌓았다. 2회 최주환-이형중-김동현이 3타자 연속 삼진을 당하는 등 다저스 마운드에 공풍 묶여 있던 키움 타선은 4회 침묵을 깼다. 선두 다니 로슨이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가 2루 도루로 찬스를 만들자 1사 2루를 맞은 최주환이 좌전 적시타로 한 점을 만회했다. 그러자 다저스는 5회 키움 두 번째 투수 손현기를 공략해 4점을 쏟아내며 흐름을 완전히 끌고 왔다. 볼넷 2개와 안타 1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헤이워드의 우익수 희생플라이가 터졌다. 이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미국프로야구(MLB) 공식 개막시리즈를 앞두고 열린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대 키움 히어로즈 연습 경기를 마친 양팀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 러크, 크리스 테일러, 헨터 페두치아가 연달아 적시타를 때려 8-1로 도망갔다.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다저스는 7회 미겔 로하스의 적시타, 오스틴 반스의 희생 플라이 등

으로 5점을 더 쟁겼다. 1-13으로 끌려가던 키움은 7회말 2사 1, 2루에서 송성문의 좌중간 적시 2루타로 2점을 쌓았지만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0-3 완패에 손흥민 일침 “실망스러워...모두 반성해야” 토트넘, 풀럼에 0-3 완패...리그 4위 도약 실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이 풀럼전 완패에 대해 “모두 거울을 보고 ‘내 잘못이다’라고 말해야 한다”며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트넘은 17일 오전 2시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디지에서 열린 풀럼과의 2023-2024시즌 EPL 29라운드에서 무기력한 경기력 끝에 0-3으로 완패했다.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42분까지 87분을 소화했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3경기 연속골에 실패했다. 토트넘은 이겼다면 아스톤 빌라(승점 55)를 제치고 4위로 도약할 수 있었지만 16승5무7패(승점 53)로 5위에 머물렀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큰 경기였다. 이날 토트넘은 볼 점유율에서 56.8%-43.2%로 우위를 점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다. 슈팅은 풀럼이 더 많았다. 슈팅 16개, 유효슈팅 7개였다. 토트넘의 슈팅은 14개, 유효슈팅은 5개였다. 손흥민은 경기 후,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

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였다. 모두가 거울을 보고 ‘내 잘못이다’라고 말해야 한다”며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노력이나 성과가 좋지 않았다. 경기력과 태도 모두 충분하지 않았다”며 “큰 경중을 올려야 한다”고 보았다. 최근 2연승을 달린 토트넘의 4위 도약이 유력해 보였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4위 아스톤 빌라와 승점 차가 2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는 리그 12위로 중위권에 있는 풀럼이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아쉬움이 짙을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EPL에선 준비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아스톤 빌라도 좋은 팀이지만 풀럼 역시 좋은 팀이다”며 “승점 3점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EPL을 대표하고, 토트넘을 대표한다. 이런 경기를 보는 건 매우 슬픈 일”이라고 했다. 뉴시스

‘허벅지 통증’ SF 이정후, 다음 주 중반 복귀 예정

왼쪽 햄스트링(허벅지 뒷근육) 통증으로 잠시 쉬고 있는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다음 주 중 그라운드로 돌아올 전망이다. 17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MLB닷컴에 따르면 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이정후는 다음 주 중반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후는 지난 14일 신시내티 레즈와 시범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1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좋은 타격 페이스를 보이고 있던 중 햄스트링에 타이트함을 느껴 조기 교체됐다.

당시 멜빈 감독은 “다리 뒤쪽에 약간의 빠근함을 느꼈다”고 이정후의 상태를 설명하며 “큰 문제는 아니다. 15일에 경기도 없어 무리하게 뛰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루 휴식을 취한 뒤에도 이정후가 계속 불편함을 느끼자 샌프란시스코는 2-3일간 그의 야구 활동을 제한하면서 상태를 더 지켜보고 있다. 지난해까지 KBO리그에서 활약했던 이정후는 2024시즌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1300만 달러(약 1505억원)에 손을 잡았다.

‘최종 점검’ 류현진, 시범경기 두 번째 등판서 5이닝 6K 2실점

76개의 공 던져 53개의 공 스트라이크존 통과

‘돌아온 에이스’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이 정규시즌 개막을 앞둔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류현진은 17일 사직구장에서 벌어진 2024 신한 솔베르크 KBO리그 시범경기 롯데 자이언츠전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6개의 안타를 맞고 2실점했다. 실점하기는 했으나 6개의 삼진을 잡는 동안 볼넷을 하나도 내주지 않으며 안정적인 제구를 선보였다. 지난달 말 전격 KBO리그 복귀를 결심하고 한화와 8년, 총액 170억원에 계약한 류현진은 이날 시범경기 두 번째 등판에 나섰다. 류현진은 시범경기 첫 등판이었던 지난 12일 대전 KIA 타이거즈전에서는 4이닝 3피안타 3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당시 62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이날 투구수를 한층 늘렸다. 76개의 공을 뿌렸고, 53개의 공이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했다. 류현진은 직구, 체인지업, 커브, 컷 패스트볼을 고루 섞어댔다.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44km를 찍었다. 1회말 롯데 리드오피 정훈에 우전 안타를 맞은 류현진은 노진혁을 삼진으로 처리했다. 볼카운트 1볼-2스트라이크에서 커브로 헛스윙

을 유도했다. 류현진은 빅터 레이에스에 좌전 안타를 허용해 1사 1, 2루에 몰렸지만, 전준우와 유강남을 연달아 우익수 플라이로 잡고 실점을 막았다. 2회초 하위타순을 맞아 삼자범퇴 이닝을 만든 류현진은 3회 흔들렸다. 장두성을 2루수 땅볼로, 정훈을 삼진으로 처리한 류현진은 노진혁에 내야안타를 허용했다. 노진혁의 원바운드된 타구에 맞은 류현진은 급히 공을 잡았지만, 1루에 던지지 못했다. 레이에스에 우전 안타를 맞은 류현진은 전준우에 2타점 우전 적시 2루타를 헌납했다. 전준우는 류현진의 시속 142km짜리 직구를 노려쳐 장타로 연결했다. 류현진은 후속타자 유강남을 3구 삼진으로 처리해 더 이상 실점하지는 않았다. 4회초 1사 후 박승욱에 안타를 맞은 류현진은 이주찬에 3루 땅볼을 허용하면서 주자를 2루까지 보냈다. 그러나 장두성에 컷 패스트볼로 유격수 뜬공을 유도해 실점없이 이닝을 마쳤다. 류현진은 5회초 정훈, 노진혁을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정훈을 상대로 볼카운트 3볼-1스트라이크



에서 직구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은 후 컷 패스트볼로 헛스윙을 이끌어냈다. 노진혁은 커브와 직구를 활용해 투킹 삼진으로 처리했다. 류현진은 레이에스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고 이닝을 끝냈다. 류현진은 6회초 김규연에게 마운드를 넘겼지만, 개막을 앞두고 투구수를 채우기 위해 볼펜에서 공을 더 던졌다. 뉴시스

‘첫 세계선수권 금’ 김길리 “월드컵 우승과는 또 다른 기분”

세계선수권대회 첫 개인전 메달을 금빛으로 물들인 한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성남시청)가 “월드컵 우승과는 또 다른 기분”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길리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1초192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금메달을 수확한 후 김길리는 “너무 기쁘고 좋다. 첫 세계선수권 금메달이고, 월드컵 우승과는 또 다른 기분이다”며 “이번 시즌 1500m에서는 끝까지 1위로 마무리할 것 같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 끝까지 종합 1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마지막까지 1위로 끝내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이 재정비를 이유로 2023-2024시즌 태극마크를 잠시 내려놓은 가운데 김길리는 여자부 에이스로 우뚝 섰다. 2023-2024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컵 1-6차 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를 수확해 여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안방에서 열린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던 김길리는 생애 첫 세계

선수권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1500m 결승에서 선두를 달리다 4바퀴를 남기고 허너 데스멧(벨기에), 크리스틴 산토스 그리스월드(미국)에 밀려 3위로 처진 김길리는 마지막 바퀴에서 역전극을 선보였다. 첫 코너에서 데스멧과 산토스 그리스월드가 경합을 하는 사이 인코스로 파고들며 추월에 성공했고, 속도를 더욱 올리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길리는 “3위여도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뒤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인코스 추월에 노렸다”며 “데스멧과 산토스 그리스월드가 경합하고 있어 (나의 추월에)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이날 김길리의 부모님, 동생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 김길리를 응원했다. 김길리는 “경기 후에 축하하고, 자랑스럽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다. 먼 길까지 와 응원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17일 여자 1000m에서도 금메달에 도전하는 김길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멋진 모습을 보여겠다”고 다짐했다. 남자 1500m 결승에서는 아쉬운 장면이 연출됐다.



16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된 2024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여자 1,500m 종목 결승에서 김길리(성남시청)가 우승을 차지하며 금메달을 획득,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선두를 달리던 박지원(서울시청)이 3바퀴를 남기고 인코스 추월하던 황대현(강원도청)과 부딪혔다. 황대현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실격 처리됐고, 황대현과 충돌 후 뒤로 처진 박지원은 6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박지원은 “(충돌에 대해)생각하지 않고 있다. 아직 1000m, 계주도 남아있다. 대회를 모두 마친 후 생각하겠다”며 “그것 때문에 다음 경기를 못해서는 안된다. 경기할 때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지만, 앞으로 해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마음을 다잡았다.